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7. 1.(수) 10:0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도로교통공단(TBN) 충북교통FM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2020-39-188)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도로교통공단(TBN) 충북교통FM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북FM방송국입니다. 의결주문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공단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7월 31일에 도로교통공단은 방통위에 교통충북 FM방송국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년 11월 15일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기술심사를 의뢰했고, '20년 1월 6일에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술심사 적합 판정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신규허가 신청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을 일원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교통FM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8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고, 세부 기준심사 및 평가 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별 배점(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7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허가여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FM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신청법인인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11개 각 지역별로 FM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주 등 충청내륙권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열두 번째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떠나는 그날까지도 이번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청법인의 신규 방송국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 또 지역FM라디오방송국으로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도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심사의 기본방향이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그리고 심사기준 등 TBN의 충북교통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해 오던 도로교통공단의 신규허가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구역이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을 중심으로 하고, 음성과 괴산, 보은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충북 전체 몇 퍼센트 정도를 커버하는 것입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수치로는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보조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서 거의 전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대로 괴산이나 보은 일부 지역에서는 음영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의 경우 '21년 그쪽에 보조국을 신설 하는 식으로 해서 음영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주파수 여건이 허락하는지를 보고 허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주파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보조국을 통해 중복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때 그런 주파수 문제나 혼신 문제 등은 사전에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TBN이 제시하는 기존 편성정책 방향을 보면 교통과 기상정보가 90%이고 지역 정보 5%, 캠페인 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음악과 정보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정보와 재해·재난 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라디오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서」 보고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 「라디오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서」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 진흥위한 정책건의서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지상파라디오 진흥자문위원회'는 라디오의 공공성·공익성과 지역성·다양성 제고, 라디오 산업의 진흥 및 혁신 유도 등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방통위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7년 7월 국정과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의 실천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이 제시된 바 있고,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라디오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7인으로 '지상파라디오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5월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일에 자문위원회는 라디오 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를 제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건의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라디오는 1920년 처음 등장한 이래 매스미디어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등장, 스마트 기기 보편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라디오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건의서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라디오 방송 현황입니다. 현재 49개 방송사, 229개 방송국, 3,000여명이 라디오산업에 종사 중입니다. 라디오 광고 등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저하되고 있으며, 중소 사업자 부채비율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AM 방송 재투자 등 신규 투자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라디오방송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라디오 방송 환경 대응 미비입니다. 뉴미디어 등장으로 라디오 이용빈도 하락, 수신기 보유율 감소 등 전통적 방식의 라디오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라디오 방송매출액 등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엄격한 규제에 의한 프로그램 경쟁력 하락입니다. 라디오는 청취형 매체임에도 TV에 준하는 강한 광고·편성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가상·간접광고 등 규제완화도 TV에만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TV보다 라디오에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디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재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라디오 진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우리나라는 라디오 진흥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나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라디오 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라디오 접근성 향상 및 재원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취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라디오 통합 앱·포털 개발, 스마트폰 등을 통한 FM 직접수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방송 다양성 구현입니다. 라디오 사업자 신규허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증액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표준FM이 AM의 보조 기능을 넘어 중심적 역할을 함에 따라 AM과 표준FM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취자 보호, 커버리지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가 AM과 표준FM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적 방송망, 국가안내 목적의 방송, 국외송출을 위한 방송 등은 AM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청취권 보호를 위해 청취자 수, 커버리지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송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취매체인 라디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기준 및 선거방송 관련 여론조사 공표 기준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라디오 방송 규제 개선입니다. 방송광고·편성의 자율성 및 명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총량제 도입, 중간광고·타이틀스폰서십·라이브리드 광고 허용, 금지품목 규제개선 등 포괄적 광고규제 완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라디오에 대한 편성규제의 명확성과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편성규제 분리 및 라디오 편성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신규허가 및 폐업 절차 개선입니다. 라디오의 공공성·공공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라디오 정책방향을 매3년마다 마련하고, 동 라디오 정책방향과 가용 주파수, 지역별 분배, 청취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영악화 또는 자진 폐업에 따른 방송 중단 시 청취자 보호를 위해 방송 폐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공적 지원 강화입니다. 보편적 통신매체로서 라디오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라디오 청취조사,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신규예산 확보를 추진하되,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기존 예산 중 라디오 관련 예산을 별도로 구분 증액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정책건의서는 인터넷, OTT 등 뉴미디어 등장, 스마트 기기 보편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보편적 청취매체로서의 라디오의 고유한 가치 제고 및 향후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서를 접수하고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 차원의 라디오 진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건의서의 과제별로 담당 부서에서 세부 실행방안과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디오 진흥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하여 주시면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건의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담당부서별로 라디오 진흥 정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라디오 진흥 3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지상파라디오진흥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터라 몇 가지 보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라디오매체 발전방안에 대해 그동안 연구용역보고서가 몇 차례 발간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차원의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정책건의서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사무처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된 바와 같이 라디오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의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중 세부 실천과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4기 방통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체되다가 2018년 10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5월까지 1년 7개월간 11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건의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매체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이 매우 소수이고, 관련 자료들이 부족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서 정책건의서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의서의 핵심은 <붙임 3>의 31쪽 '라디오 방송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요약'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 포괄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재원의 확보, 라디오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등 3대 분야

12개 항목의 진흥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정책건의서 내용을 반영해서 정부 차원의 라디오 진흥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송정책국과 기반국 및 기획조정관 산하 6개 과와 팀이 정책건의서에서 제시된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라디오 진흥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바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건의서 내용 가운데 시급한 과제들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양국장님, 여기에 제시된 과제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무적인 생각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선적인 사항입니다. 지상파 전체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특히 라디오와 지역방송들은 어렵기 때문에 규제완화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체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AM 문제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송산업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라디오 분야부터라도 방송광고의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AM과 FM의 역할 재설정도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5기 위원회를 이어갈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소재를 가지고 방통위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학계에서는 소위 마이너 매체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를 꺼려하다 보니까 라디오가 굉장히 소중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책까지 잘 나와 있어서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와 관련된 이런 정책건의서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정책건의서를 접수 하고 정책건의서 내용을 반영해서 정부 차원의 라디오 진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놓았고, 또 과제별로 담당부서에서 세부 실행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바턴을 받아서라도 제가 챙겨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지 우선과제, 이런 내용들도 정리가 되면 저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허 욱 위원님과 자문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제시되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양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를 중심으로 또 타 부서와 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차기 제5기에서 라디오 진흥을 위한 그런 정책 마련에 애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매체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지만 라디오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난의 경우는 라디오가 사실상 주력 매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라디오가 어려운 것이 주파수의 한계, 과기정통부에 물어 보면 통상 주파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책건의서가 라디오 진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이것을 허 욱 위원님 애써서 다른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AM 주파수 회수 문제, 이것은 방송사업자들 쪽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파수를 반납하면 ITU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공동체 라디오의 활성화, 이것은 와트수를 적게 가지고도 일정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매체가 될 수 있는데, 제4기 방통위원회 출범하고 나서부터 계속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말만 했지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체 라디오가 7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2005년 舊 방송위원회 시범사업으로 7개소를 허가를 했고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 이후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7군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건의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활성화를 시키면 소규모 지역별 주민들의 소통창구로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라디오 신규허가, 폐업 절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허가 부분 정책건의서는 정책방향, 가용 주파수, 지역별 분배, 청취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추진하는데 괄호 속에 '연도별 신규허가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파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찾아서 올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경영악화 또는 자진 폐업에 따른 방송 중단 때 청취자보호를 위해 방송 폐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경기방송에 저희가 조건부 재허가를 했는데 사업자 쪽에서 문을 닫겠다고 해서 현재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책건의서에는 이럴 경우 청취자 보호를 위해 폐업의 경우에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정 기간은 청취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고 안건이니까 좋은 제안서라서 당연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접수 의견을 모두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접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신속하게 실행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감동 깊게 여러 차례 봤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나름 지금 말씀하신 재난방송에도 유용하고 그리고 지역방송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체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연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의 의견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계획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7분 폐회 】